

#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http://www.kumsung.org)

##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 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 5:13-14)

##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11월 22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요 14:16-18, 25-27

제목 : 감사의 신앙 · 감사의 열매(4):

결에 계신 위로자로 인하여

말씀 :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 14:16)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 양인의 삶은 저 높은 곳에 있는 분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삶의 길을 걷는데 마귀가 늘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마귀는 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평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 기도는 해야 해 그런데 오늘하지 말고 내일하자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바쁜걸 아실거야.” 그렇게 타협을 하게 합니다. 결국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네덜란드는 튜립의 나라입니다. 튜립이 국화입니다. 튜립의 꽃말은 사랑의 고백, 매혹, 영원한 애정, 경솔입니다. 한때는 황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을 만큼 고결하고 우아한 꽃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네덜란드의 튜립축제는 큰 자랑이며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관광수입도 천문학 수자입니다. 튜립축제에 관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사진)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축제를 열지 못하고 또한 세계시장이 얼어붙음으로 인하여 수출을 하려고 했던 튜립 4억 송이가 폐기 처분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은 코로나19 방역의 최전방에서 애쓰고 있는 한국의 의료진에게 네덜란드의 상징인 튜립으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요안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들에게 직접 튜립 꽃다발 1000개를 나눠줬습니다. 희망과 영원한 애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사진) 네덜란드 사람들이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에 튜립과 관련된 오래 전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이 밭에 아름다운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이 자라

서 아름다운 꽃을 피었습니다. 그게 툭립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천사가 씨앗을 뿌렸는데 아름다운 툭립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다 죽어있었습니다. 웬일인가? 알아보니 천사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천사가 지나간 다음에 마귀가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뿌리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무리 천사가 뿌린 그 좋은 씨앗이라도 죽여서 자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원망과 불평은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감사하면서 살 것을 명령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11월 매주 예배시마다 하나님이 내려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주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은혜입니다. 둘째 주엔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 또한 생명을 볼 수 있음을 인하여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주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늘 계시는 위로 자가 있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영상 그림 띄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길을 갑니다. 땅의 길을 갑니다. 그 끝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길을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길을 가게 됩니다.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심 탐탐 노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길에 대해서 찬송491장 4절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 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천국까지 가는 이

길에 내 옆에서 늘 같은 거리에 있으면서 세상 끝 날까지 동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 길에 동행하면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분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한분도 낙오자가 없이 천국까지 갈 줄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동행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에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무엇을 하면서 우리와 동행을 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기록된 성령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13-16장은 주님이 이 땅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하신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 강의 14장에서 주님은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나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면 얼마나 슬프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어서 아버지 품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걸까요?

그 답을 우리는 요14:16-18에서 찾게 됩니다.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특히 16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성령의 이름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의 헬라어는 <알론>입니다. 이 단어는 본질이 똑같고 지위도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똑같은 쌍둥이에게도 이 단어 사용 못합니다. 외모가 똑같이 생겼을 지라도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혜사>의 헬라어는 <파라크레토스>입니다. <파라크레토스>=<파라(곁으로)+클레토스(불림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곁으로 불림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영어로 counselor(상담자), helper(돕는 자) comforter(위로 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림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띄움) 성령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곁에서 계시면서 세상 끝 날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곁으로 가시지만 주님과 본질이 같은 분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 날까지 늘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나의 진정성을 몰라줄 때입니다. 그리고 자칫 오해를 받을 때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입니다. 이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수고했다고 위로의 말을 해주면 좋건만 어떤 때는 사람들의 냉정한 태도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자칫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지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지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상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헌신하며 지내왔는데 자식들로부터 서운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저게 정말 내 자식 맞아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의 가장들 남편들이 일터에서 무거운 일을 정말 경쟁사회에서 쉴 틈도 없이 감당하고 집에 왔는데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늦게 와요라고 한 무심코 던지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당합니다.

정말 사람이 지치면 전화할 마음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냥 집으로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오늘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지쳐있는 것을 몰라주는 것에 마음이 상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사이에 생각 없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하나 내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럴 때 성령님은 늘 역사하십니다.

엘리야가 너무나 사역에 힘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자기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빨리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도 다 내려놓고 죽고 싶었습니다. 광야로 도피해서 로렘 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엘리야 곁으로 보냈습니다. 지친 그에게 음식을 주고 몸을 풀어주면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새 힘을 얻게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곁으로 불림을 받아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하면서 많이 지쳐있습니까? 알아주는 분들이 없습니까? 일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해있습니까? 감사할 마음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조용히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찬송 가사를 통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감사함으로 신앙인의 길을 갈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위로와 함을 줍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함께 하여주십니까? 천국까지 가는 길을 끝까지 가도록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일들을 이기에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칼빈은 <성도의 견인사상>으로 말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힘들도 지치고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기도록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칼빈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도들은 인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의 견인 사상을 제가 부목사 때 절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한 자매가 전도를 받아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 가정에 심방을 갔습니다. 가보니 시댁은 우상숭배가 강합니다. 시모와 남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반대도 심했습니다. 우상숭배 하는 가정에서 주님을 믿으면 안 좋다고 하면서

반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반대를 이기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이 장사를 하는데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갔습니다. 친구가 운전을 해서는 안 될 상황인데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은 허벅지 아래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저는 이 자매에 대하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당할 핍박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다 네가 교회에 나갔기 때문이다, 라는 핍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 자매가 견딜 수 있을까? 주저앉으면 안 되는 데 염려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새신자가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이 자매가 새벽기도회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곁에서 들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다 이겨냈습니다. 그 남편이 병상에 오래 있었는데 병상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아픈 몸으로 교회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때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인가 성령이 인내하도록 이기도록 곁에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구나,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후에 주님을 믿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역경과 환란이 닥쳐도 여러분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란과 역경 중에서도 감사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의 길을 소망 가운데 가게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진리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주님이 한 말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신 후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그때 너희들이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잠시 후면 나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도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주 앞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여러 정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

면서 또한 성경을 읽을 때 가슴속에 남아있는 은혜 받은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한 집사님이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경 공부 중 암송했던 말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함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자매가 방금 전에 묵상했던 내용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서 놀라움에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이게 성령이 곁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릅니다.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시어 일러주소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사시다가 어떤 일들이 닥쳐도 당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성령님이 다 아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면서 이기에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감사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진)천국까지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코로나 19도 우리를 불안하게 우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동행해주시면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하루 천국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입술에서 이 가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은 “OO야! 바로 그 모습이 내가 너한테서 보고 싶은 삶이다.” 하시면서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을 더 보여주시실 것입니다. 곁에 계신 위로 자가 있음을 인하여 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 길을 잘 가기를 바랍니다. .